

미적 효과 전달을 기준으로 한 문학번역 비평 - 『폭풍의 언덕』을 중심으로

김 순 미
(숙명여대)

1. 서문

문학번역의 평가는 우선 그것이 가능한가를 고민하는데서 출발하게 된다. 텍스트마다 작동하는 시적 기능은 각각 고유한데 모든 문학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규범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작품 해석이 큰 몫을 차지하는 문학 번역에서 객관적 규범 자체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혜용 2012: 120). 실제 정보전달 중심의 실무 텍스트의 경우 캐나다 번역국의 SICAL(Canadian Language Quality Assessment System)을 비롯한 각종 과학적 방법과 기준을 적용한 평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문학번역 텍스트의 경우 객관적, 과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할 수 있다.¹⁾ 그러나 잘 된 번역평가는 특정 시대, 사회의

번역관을 보여주고, 거시적, 미시적 번역전략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독자들을 위한 독서의 길잡이가 되는 등 그 의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학번역 평가 연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번역가가 택한 전략의 기능과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는 ‘비평’을 비판적 품질 ‘평가’와 구분함으로써 문학번역 비평의 틀을 새로이 짤 수 있다고 본다. 문학번역에서 평가를 넘어선 비평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상원(2008: 162)도 번역 결과물과 번역자에 대해 선생의 태도를 취하면 번역평가,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번역비평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문학 비평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문학번역 결과물에 문학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 2) 문학번역 텍스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비평 대상으로 삼아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 3) 비평자의 번역관을 밝히고 평가능력을 바탕으로 비평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 4) 문학번역 텍스트를 통해 번역자의 번역관을 파악하고 이를 번역 비평에 반영한다.
- 5) 오류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번역자의 전략을 분석한다.
- 6) 도서 출판을 위한 번역의 경우 그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다.

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번역을 하나의 창작물로 보고 문학번역 비평을 하는 비평가의 번역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번역가의 번역관과 전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학번역 비평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론자인 라이스(Reiss 2000)의 텍스트 유형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라이스는 문학을 다른 텍스트 유형과 차별화 하는 요소, 즉 미적 효과를 드러내는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을 문학번역에서 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았고, 같은 맥락에서 이것이야말로 번역 비평가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다양한 언어적 효과와 인물 각각의 성격과 관계라고 생각하는 본 저자의 문학번역에 대한 입장은 라

1) “다름’의 미학에 바탕을 둔 서로 다른 문학텍스트를 객관적 준거를 가지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이형진 2008: 90).

이스의 이론과 맥을 같이 하므로 본고에서도 이에 의거해 비평을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문학만이 지닌 미적 형식은 무엇일까? 라이스는 은유, 언어유희, 속담, 비유 등 수사적 표현과 각운, 운율 등을 대표적인 문학의 표현 도구로 들었으나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학자는 르페베르(Lefevre 1992)이다. 그는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수한 요소를 이론과 실제 면에서 연구하였으며 라이스가 밝힌 기교, 운율, 수사적 기법의 사용 등 표현적 측면 뿐 아니라 방언, 개인어, 언어역 설정 등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드러내는 측면, 그리고 외래어, 문화적 배경이 담긴 단어, 신조어 등 외국 문물의 향취를 느끼게 해주는 측면 등이 문학이 가진 특수한 요소라고 하였다. 물론 르페베르는 본고의 연구 분야인 소설 뿐 아니라 시도 포함하는 문학 전반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그가 제시한 요소들은 문학의 표현적, 미적 영역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의 첫 번째 과제는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 중심 비평 이론과 미적 표현 도구에 의거하여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위의 기준을 기초로 실제 텍스트를 비평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른 문학평가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번역학계에서 행해진 가장 방대한 문학번역 비평인 영미연의 연구를 비교 대상으로 택했다. 영미연 연구는 충실성과 가독성을 비평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미적 표현을 기준으로 삼은 본고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차이점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이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문학 특유의 형식적, 미적 요소가 풍부한 문학성 뛰어난 작품이라는 점과 영미연 연구에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영미연의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능 중심 비평 방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기에 용이한 텍스트이다. 구체적 연구 방법론으로는 한 가지 원천 텍스트와 여러 종의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형식을 택했다. 번역비평은 텍스트 비평 없이 연구 방법론의 구축에 집중하는 경우, 기준 설정 보다는 텍스트 비평에 집중하는 경우, 직접 기준을 정한 후 이에 의거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비평을 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기준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번역비평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번역비평을 하려는 시도이다.

연구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번역비평은 기술(記述)적 연구라 하더라도 기준 설정에서부터 비평가 자신의 번역관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비평의 범위나 방법 면에서도 “원문을 기준으로 번역문을 비교분석하는 전통적 방식을 번역 평가의 핵심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원문의 전횡에서 벗어나 도착문화의 맥락 내에서 번역 텍스트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며, 출판 환경, 수주 조건, 번역물 수용의 시공간적 배경 등 번역의 내재적 속성과 상관없는 번역 외적 요소들까지 번역 평가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정혜용 2012: 115) 등 학자나 연구의 성격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크며, 특히 논제적 비평의 경우는 “비평가에 따라 번역현상을 진단하는 관점이 다르므로 논제의 양상도 다양”(전현주 2006: 225)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번역 비평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예술품의 비평과 마찬가지로 번역 평가 규범의 정립에는 학자의 번역을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문학번역 비평에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 본 연구의 기준을 세우기까지의 이론적 배경을 전개하려 한다.

2.1. 선행연구의 기여도와 한계점

번역비평이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는 언어적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역, 첨가, 누락 등이 비평의 중요 기준이었고 “현재도 압도적인 다수의 번역 평가가 번역본이 가진 오류와 단점을 파헤치는 데 치중”(이상원 2008: 150)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원문에 대한 충실성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번역문의 가독성²⁾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번역을 평가하는 경향도

2) 충실성(faithfulness):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어, 구절, 문장 등에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번역의 빈도나 정도를 판별한다.

가독성(readability):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개 문장 차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행해진 가장 방대한 문학번역 평가인 영미연의 연구로 중역, 오역 등으로 얼룩진 한국 문학작품 번역 현실에 대한 방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함람미달의 번역을 걸러내는 큰 과업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원문에 대한 번역의 종속적인 위치를 전제로 번역문의 위계를 정한 평가라는 점에서 평가 기준과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혜용은 연구팀에서도 자신들의 방법론의 한계를 알고 있다며³⁾ “이들은 충실성과 가독성 규범이 ‘번역본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따지는 잣대가 되지 ‘번역의 문체 등 좀 더 고차원의 분석이나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결국 이 연구팀의 결론과, 우리가 문학번역 실천에 비추어 가독성과 충실성이라는 두 잣대에 대해 내렸던 부정적인 평가는 일치하는 셈”(2007: 36) 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원도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번역평가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각 작품별 번역본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충실성 기준에 대부분의 내용이 할애된다”(2008: 151)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영미연 연구에 참여했던 김영희는 연구에 대한 한계와 문제의식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평가의 기준이었던 원전중심주의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비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양적 풍요에 비해 두드러지는 질적 빈곤이 짙어지지 않으면서 번역에 대한 ‘기술’(記述)만 한다면 실상과 동떨어지는 분석이 나올 위험이 크다”(2008: 59)고 지적한다. 이상원도 이런 현상이 “문학 전공자의 번역 평가가 애초부터 원 작품의 문학적 구조와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다”(2008: 152)고도 보았다. 그러나 한국 문학번역계의 현실이 열악하다고 해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기술적 평가가 가진 위험성이나 한계를 주장하며 오류분석 위주의 번역비평만 고수할 수는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영희는 영미연 연구에도 단순히 부실하지 않은 번역을 찾는 수준에서 벗어난 “‘좋은 번역’에 대

원에서 어색하거나 생경하거나 비문인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다만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낯선 역어나 구문을 선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역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영미연 2005: 21-22)

3) “우리 작업은 사업명에 명시된 ‘평가’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번역본이 난립하고 좋은 번역본 선별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영희 2008: 34).

한 논의가 실제 개별 번역본에 대한 서술에는 상당히 포함되었다는 점”(2008: 51)을 강조하면서 평가 방법을 충실성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주목할 것은 영미연의 연구에서 실제로 단순한 충실성이나 가독성의 영역을 벗어나 작가의 문체나 방언, 시제, 은유적 표현, 비속어 등의 문학 특유의 번역상 문제가 되는 논제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도 상당 부분 행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옥동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번역에 대한 영미연 비평에는 다음과 같이 사투리와 비속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짐의 사투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특정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짐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짐의 성격이나 작중 위치 혹은 사투리가 작품 내에서 지니는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사투리가 환기하는 효과를 더 부각시키는 역효과가 있다. (119)

이외에도 김옥동의 번역본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허크의 말에서 눈에 띄게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토껴버렸지요”(16면), “골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18면), “미친 소리”(181면), “대갈통이 어떻게 된 바보 멧덩구리”(181면), “기똥찼던”(183면) 등과 같이 번역본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허크의 말투는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인데, 이런 비속어들의 사용은 허크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예법’과는 다른 차원의 인간적 품격 혹은 순수성을 유지하는 허크의 전체적인 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표현이라 판단된다. (123)

그러나 단지 오역이나 번역문의 매끄러움 등과 같은 측면에 대한 논의가 주된 토론 기준이었다면 방언이나 비속어에 대한 언급은 부수적이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학적, 표현적 요소들이 비평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제 본 연구의 비평 기준 성립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2.2. 비평 기준 정립의 이론적 배경

라이스는 “번역가가 번역 방법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텍스트 타입”(2000: 17)이라고 하면서 텍스트를 구분하는 가장 큰 범주인 문학 텍스트와 실용 텍스트를 비교해 볼 때 “문학 텍스트 번역에 대해 훨씬 더 다양한 이론이 정립되고, 많은 토론과 반박이 이어졌다”(17)고 하였다. 문학번역에 대한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용서의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반면 문학작품인 산문이나 시의 언어는 미적 가치를 전달하는 예술적 창의성의 도구”(18)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기능론자인 라이스는 블러(Bühler)가 제시한 언어의 기능에 따라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실제 텍스트는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정보 전달 기능이 강조되는 내용 중심(content-focused) 텍스트, 미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표현적 기능이 강조되는 형식 중심(form-focused) 텍스트, 대화형식의 언어를 사용하며 설득적 기능이 강조되는 호소 중심(appeal-focused) 텍스트 등으로 분류”(25-26)하였다. 그는 단지 번역가들만이 텍스트 유형에 적절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비평가 또한 이렇게 제시된 텍스트 유형에 근거하여 비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학번역은 이 중 표현적 기능이 강조되는 형식 중심 텍스트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형식’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와 구분되는 것으로 ‘어떻게 자신을 표현 하는가’의 문제”(31)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라이스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여 문자 그대로 노예처럼 원문의 모든 형식을 흉내 내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많은 경우, 특히 음성학적 표현이나 언어유희 같은 경우 의미와 형식을 동시에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표현적인 언어의 기능을 살리는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라이스에 의하면 번역가들은 원문의 형식을 음미한 후 영감을 받아 목표어권 독자들에게 원문 독자들이 느낀 것과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원문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새로운 형식을 목표어로 창조해 내야 한다.

형식 중심 텍스트는 원천어 지향적인 텍스트라 불리는데 그것은 원문 문체의 속도, 형식, 각운, 비유적 표현 사용, 속담, 은유 뿐 아니라 운율과 미적 효과 등 모든 언어 형식에 ‘대응되는’ 형식을 목표어에서 찾아 원문과 ‘유사한 효과’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는 의도적으로 목표어권의 언어사용 규범에서 벗어나는 형식을 추구할 수도 있고 일대일 대응 형식을 찾지

못한 경우 텍스트의 다른 곳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주려고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번역비평가는 이를 잘 파악해서 인정하고 오류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즉, 일대일 대응 형식이나 의미가 아니라 독자로부터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주는 형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고 번역가가 그런 전략을 추구했다면 비평가는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라이스는 다양한 수사적, 비유적 표현들과 음성학적인 도구들을 문학의 형식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르페베르의 문학번역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보면 된다. 르페베르가 제시한 문학에서 두드러지는 ‘비표현 수행능력이 있는 언어사용’(illocutionary use of language)은 라이스가 말한 표현적 측면 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으로 이국적인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어휘,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사용역(register) 등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표현적 측면은 은유, 두운, 각운, 언어유희, 패러디 등 수사적 표현과 시적 운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국적 문화배경은 외래어, 신조어, 외래 문물에 관한 낯선 용어 등을 들 수 있고 인물의 성격과 관계는 비속어, 방언, 언어 사용역 등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문학번역 이론에 기초해 본 논문에서는 『폭풍의 언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학 요소들 중 관용어와 은유, 언어유희, 속담, 유머, 패러디와 같은 비유적, 수사적 표현(figurative expressions)과 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설정하는 대우법(honorification), 비속어, 방언 등을 중심으로 번역비평을 행해보려 한다. 문학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역시 의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번역에서는 원전의 의미에 대한 충실성이나 번역본의 가독성뿐만 아니라 원전의 문학성이 번역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김순영 이경희 2012: 53) 하기 때문이다.

3. 영미연의 『폭풍의 언덕』 번역 평가

영미연에서는 『폭풍의 언덕』에 대한 1958년도 최초의 번역본부터 2000년

까지 총 91종의 번역본 중 주요장면을 전달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 안동민, 이봉순, 김종길, 유명숙, 정금자, 오국근, 강봉식, 황용하, 이장성, 윤종혁 등 10종의 번역본을 집중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평가를 마쳤다. 그 결과 “원작의 작품성을 살려내고 오역이 적은 신뢰성 높은 번역본은 매우 적다”(345)고 결론 내렸으며 그 중 비교적 신뢰할 만하여 추천본으로 제시된 것은 김종길, 정금자, 유명숙본이다. 이들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명백하게 부정확한 번역은 평균 4.5면당 1개꼴로 드문 편이어서 번역의 정확도에서는 매우 우수한 편이었으며, 부정확한 대목도 내용 전체를 잘못 전달하는 명백한 오역이나 줄거리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보다는 단어 의미 파악의 오류나 관용적인 표현을 잘못 번역한 정도였다. 가독성의 측면에서는 매끄러운 우리말 구사로 읽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으나, 무난한 문장을 구사하는 듯 하면서도 막상 원문과 대조해보면 세밀한 뉘앙스는 디테일을 놓치고 원문의 내용을 다소 단순화해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다. (348) *밑줄은 필자의 것

김종길 번역에 대한 위의 평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역의 개수나 심각성, 그 성질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며 가독성 측면을 이야기 하면서도 “막상 원문과 대조해보면” 단순화되었거나 디테일을 놓치고 있다고 함으로써 결국 충실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총평 뒤의 세부적 평가에서도 단어나 구절 단위에서 문맥을 잘 살리지 못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der-bred pride’를 ‘천한 자존심을 풍기는’이라고 번역해서는 비천한 신분 때문에 도리어 거만하고 뻣뻣해 보이는 히스클리프의 복잡한 인상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350)나 “대문의 가로막대를 장애물이라고 한다거나 워더링 하이츠의 거실 모습을 설명하는데 음식들을 걸어놓은 나무선반 이야기를 누락시킴으로써 천장부분의 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 히스클리프가 캐시에게 빨리 가서 짐을 챙겨오라는 뜻으로 ‘가라’라고 말한 부분을 ‘비켜’라고 번역한 것”(361-362)와 같이 단어나 구절이 내용이나 성격 전달에 부족하거나 부적절,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지적들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의 실정을 볼 때 번역가들과 출판사에게는 좀 더 성실하게 번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김영희의 논문을 통해 밝혔듯이 번역 평가가 아닌 비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순 오역이나 가독성 부분에 관한 지적 이외 문체나 번역가의 번역 전략 등 충실성이나 가독성을 넘어 ‘좋은 번역’을 만들기 위한 다른 측면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물론 영미언의 번역비평도 부분적으로 인물간의 관계, 인물의 성격⁴⁾에 적절한 어투 등 문체, 번역전략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내용은 비평의 기준이 된 언어적 충실성과 가독성 중심의 비평에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일 뿐이었다.

4.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 이론 기반 『폭풍의 언덕』 번역 비평

본 연구에 포함된 번역본은 김정아본, 유명숙본, 김종길본, 이덕형본 등 네 종이다. 이 중 유명숙본과 김종길본은 영미언 연구에서 추천본으로 선정되었던 작품이다. 두 번역본은 모두 그 후 다른 출판사에서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는데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정판에서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정아본과 이덕형본은 영미언 연구 후에 출간된 작품들로 이덕형은 그동안 『가시나무새』, 『허클베리핀』, 『호밀밭의 파수꾼』, 『제인 에어』 등 많은 작품의 번역을 한 인정받는 번역가이기에, 김정아본은 문학동네 출판사가 야심차게 출간한 클래식 번역 시리즈에 포함되었으며 각종 인터넷 서점 독자들의 판매지수와 반응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기에 선정하였다. 분석텍스트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 4) 조셉 같은 인물의 특이한 사투리와 구어체는 거의 살려내지 못하는데, 이는 번역의 일반적인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위, 연령, 나이에 따라 각각 알맞은 어휘와 어투를 사용하는 데서 모든 번역본이 공통적으로 취약한 면을 보였다. 이는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원문의 언어를 상황과 인물의 관계에 맞게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347)

넬리가 주로 서술하는 이야기들을 그녀의 신분과 성격, 교육 정도에 알맞은 말투로 서술한 것도 돋보이는 점이다. (360) (*밑줄은 필자의 것)

【표1】 분석 텍스트

	제목	번역가	출판사	출간년도
TT1	폭풍의 언덕	김정아	문학동네	2011
TT2	위더링 하이츠	유명숙	을유문화사	2010
TT3	폭풍의 언덕	김종길	민음사	2005
TT4	폭풍의 언덕	이덕형	문예출판사	2004

본 연구에서는 위의 번역본들을 방언, 비속어, 은유, 인물간의 언어사용역 등 『폭풍의 언덕』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문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겠다.

4.1. 은유와 관용어구

은유와 관용어구 사용은 문학번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깁스(Gibbs 1994)에 따르면 은유적 표현은 첫째, 사실적 표현(literal language)보다 훨씬 함축적이고 생생하며, 풍부한 이미지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준다는 장점과 두 번째, 화자와 청자간의 친밀감을 더욱 높여 주는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유대감이 생기는데 이는 같은 경험, 정보, 감수성을 나누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문화적 맥락도 차이는 번역가들의 입장에서 독자들을 위해 같은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표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비유적인 표현은 상실된 채 의미만 전달하거나, 은유나 관용어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거나, 목표어권의 표현으로 전환하거나, 원문에 없는 은유, 관용어 등을 창조하여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김순미 2002, 2003). 의미만 전달하면 내용은 전달하지만 관용적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충실하게 하면 효과를 잘 살릴 수도 있으나 오히려 표현 뒤의 함축 의미를 왜곡할 수도 있으며, 목표어권에서 유사한 은유나 관용어를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간혹 목표어권의 문화적 배경이 지나치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원

문에 없는 은유나 관용어 표현을 삽입하기도 한다.

다음의 첫 번째 예문은 히스클리프(Heathcliff)와 머느리 캐시(Cathy)가 다루는 장면으로 다양한 관용어와 은유의 번역방법을 볼 수 있다. 【표2】를 보면 ‘earn their bread’, ‘trash’, ‘swear your tongue out’ 등 경우 TT1-1, TT1-2, TT1-4는 은유나 관용적 효과를 살려 번역을 한 반면 TT1-3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2】 은유 표현 번역

영어 표현	TT 1-1	TT1-2	TT1-3	TT1-4
earn their bread	밥값을 하는데	밥벌이	일해서 먹고사는데	제밥벌이
trash	쓰레기	쓰레기 같은 책	그따위	쓰레기/쓰레기 같은 책
swear your tongue out	주둥이가 닳게 욕을 해도	욕설을 하다 혀가 닳아 없어진다 해도	뭐라고 하셔도	혀가 빠지도록 욕을 해도

(*볼드체는 은유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것)

ST1) 'There you are at your idle tricks again! The rest of them do earn their bread- you live on my charity! Put your trash away, and find something to do. You shall pay me for the plague of having you eternally in my sight - do you hear, damnable jade?'

'I'll put my trash away, because you can make me, if I refuse.' answered the young lady, closing her book, and throwing it on a chair. 'But I'll not do anything, though you should swear your tongue out, except what I please!' (p. 30)

TT1-1) “또 빈둥대는구나! 모두들 밥값을 하는데. 식충이 같은 년! 그런 쓰레기는 당장 내버리고 할 일을 찾으란 말이다. 계속 내 눈앞에 얼쩡대면 내가 가만 안 뒤, 빌어먹을 년아, 알아들어?”

“시키는 대로 이런 쓰레기는 내버리지요. 버터봤자 소용없으니까.” 젊은 부인은 책을 덮어 의자 위에 던지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주둥이가 닳게 욕을 해도, 나는 내가 안하고 싶은 일은 안 할 거야!”

(50-51)

TT1-2) “넌 또 피를 부려 빈둥거리고 있구나! 남들은 밥벌이를 하는데. 넌 내가 인정을 베풀어 얻어먹고 있는 거야! 그따위 쓰레기 같은 책을 치우고 일거리를 찾지 못해? 눈앞에서 직접게도 아른거린 대가를 치르도록 만듦 테다. 알겠나? 빌어먹을 계집 같으니.”

“싫다고 해 봤자 소용없을 테니 쓰레기 같은 책은 치우도록 하죠.” 젊은 여인은 책을 덮어 의자에 던지면서 대답했다. “그렇지만 욕설을 퍼붓다 당신 혀가 닳아 없어진다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하지 않겠어요!” (51)

TT1-3) “너는 또 하찮은 미술책이나 읽고 있구나! 남들은 일해서 먹고사는데 너는 내 자선 덕분에 살고 있어! 그따위 책은 집어치우고 일거리를 찾아봐. 항상 내 눈에 거슬리는 짓값을 하란 말이야. 알았어? 못한 것 같으니.”

“제가 거부해도 소용없을 테니 책은 치우겠어요.” 젊은 여자는 책을 덮어 의자 위에 던지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뭐라고 하셔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어요!” (52)

TT1-4) “넌 또 그 할 일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계발 벌이는 하는데 너만 내 자선에 기대어 살다니! 그 쓰레기는 집어 치우고 할 일을 찾아라. 내 눈앞에서 늘 얼 썩거려 나를 괴롭힌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내 말 듣고 있느냐? 이 가증스런 것아!”

“이 쓰레기 같은 책은 치워버리겠어요. 내가 거부해도 억지로 치우게 하실 테니까요.” 그 젊은 숙녀는 이렇게 대답하고 책을 덮어 의자 위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혀가 빠지도록 욕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어요!” (50)

위의 예문을 보면 ‘earn their bread’의 경우 TT1-1, TT1-2, TT1-4 에서는 ‘밥값’, ‘밥벌이’ 등 원문과 유사한 관용적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TT1-3의 김종길은 이를 ‘일해서 먹고사는데’라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원문에서 책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trash’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TT1-1과 같이 은유적 용법을 그대로 살려 ‘쓰레기’로 번역되거나 TT1-2나 TT1-4와 같이 ‘쓰레기 같은 책’으로 직유법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으나 TT1-3에서만 ‘그따위’로 번역되었고, ‘sweat your tongue out’ 또한 TT1-1에서는 ‘주둥

이가 닳게 욱을 해도’, TT1-2는 ‘혀가 닳아 없어진다 해도’, TT1-4는 ‘혀가 빠지게’ 등으로 번역한 부분을 ‘뭐라고 하셔도’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김종길의 번역은 영미언 평가에서 오역이 없고, 가독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관용어와 은유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원작이 주는 생동감을 감소시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머느리인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에게 증오에 섞인 말투로 소리 지르는 부분인데 다른 번역가들과는 달리 ‘뭐라고 하셔도’ 라는 깎듯한 존대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가 표준화, 일상화되는 경향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TT1-1은 반말체와 ‘주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긴장감을 나타내는 효과를 더 상승시킨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은유 예문은 록우드(Lockwood)씨의 워더링 하이츠 방문시 사나운 개들이 달려드는 장면이다. 놀란 그는 격렬한 방어를 하고 부엌에서는 개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하녀가 달려 나온다. 저자는 전 과정을 실제의 ‘전투장면’ 구조를 그대로 빌려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김순미(2002, 2003)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의 구조 위에 다른 구조를 그대로 입히는 구조 은유의 경우 영어에서 은유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포괄적인 인지 구조가 한국어 독자의 인지체계 내에서도 이해가 된다면 원문의 은유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번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다음은 원문의 구조은유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은유로 번역된 내용이다.

【표3】 은유 표현 번역

영어 표현	TT 1-1	TT1-2	TT1-3	TT1-4
rouse the whole hive	벌집을 통째로 건드리는 짓	벌집을 쑤셔놓은 결과	벌집을 온통 쑤셔놓은 결과	벌집을 쑤셔놓고 말았다
fiends	악마	마귀	마귀	마귀
hidden dens	은신처	소굴	굴속	동굴
issued	결집했다	뛰쳐나온	튀어나왔다	달려나왔다
subjects of	공격이 집중	공격대상	공격대상	공격하는 특별

assault				목표
	군사력의 열세를 무릅쓰고			
large combatants	적들	큰 놈들을	큰 놈들	큰 놈들을
re-establishing peace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평화를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평화를 다시 확립
some of the household	집안의 병력	집안 사람들	이 집사람	집안 사람 몇몇
inhabitant of the kitchen made more dispatch	부엌 지원군이 먼저 도착했다	부엌에 있던 사람 하나가 와주었다	부엌일을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빨리 와주었다	부엌에 있던 누군가가 더 빨리 달려왔다
weapon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볼드체는 은유적 표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combatant’, ‘assault’, ‘reestablish peace’, ‘dispatch’ 등 전투 용어를 이용한 은유의 대부분을 번역가들이 그대로 살려 주었다. 개들과 싸우는 장면을 한국어로도 유사한 은유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은유적 표현을 잘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문체를 만들어 준 것은 TT2-1의 경우였다. ‘별집을 건드리다’, ‘공격’, ‘은신처’, ‘무기’ 등 원문의 은유적 표현뿐 아니라 자신이 만든 새로운 은유적 표현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격렬한 전투장면을 완성했다. 예를 들어 ‘issued’를 ‘뛰어 나오다’ 대신 ‘결집했다’로, ‘some of the household’를 ‘집안 사람들’ 대신 ‘집안의 병력’으로 ‘inhabitant of the kitchen’를 ‘부엌일을 보는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부엌 지원군’ 등 전투의 장면을 입힌 구조에 맞게 은유적 표현으로 번역하였고 ‘군사력의 열세’처럼 원문에 없던 문맥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large combatant’의 경우 다른 번역가들은 ‘큰놈들’로 번역하였으나 이도 ‘적들’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이로서 모든 단어들 이 조화를 이루며 전체 전투 장면을 완성하고 있다. 반면에 이번 경우에도 TT2-3에서 가장 일상적인 표

현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ST2) This proceedings roused the whole hive. Half-a-dozen four-footed fiends, of various sizes, and ages, issued from hidden dens to the common centre. I felt my heels and coat laps peculiar subjects of assault; and parrying off the large combatants, as effectually as I could, with the poker, I was constrained to demand, aloud, assistance from some of the household in re-establishing peace.

Happily, an inhabitant of the kitchen made more dispatch; a lusty dame, with tucked-up gown, bare arms, and fire-flushed cheeks, rushed into the midst of us flourishing a frying pan; and used that weapon, and her tongue, to such purpose.... (p 7)

TT2-1) 그런데 이것이 벌집을 통째로 건드리는 것이었다. 크기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한 네발 달린 악마 대여섯이 저마다의 은신처를 뛰쳐나와 걸집했다. 나의 뒤꿈치와 상의 자락에 공격이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군사력의 열세를 무릅쓰고 적들을 부지깽이로 받아쳤지만,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집 안의 병력을 큰 소리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부엌 지원군이 먼저 도착했다. 걸옷을 말아 올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건장한 여자가 프라이팬을 휘두르면서 달려와주었던 것이다. 그녀가 들고 온 무기와 혀를 적절히 휘둘러 준 덕에... (p 15-16)

TT2-2) 이것이 벌집을 쑤셔놓은 결과를 낳았다. 대여섯 마리나 되는 네발 달린 마귀들이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어린 놈 할 것 없이 어딘지 모를 소굴에서 무대의 중심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내 발꿈치와 코트 자락이 주된 공격 대상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나는 부지깽이를 들고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큰 놈들을 막아 냈지만, 평화를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집안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부엌에 있던 사람 하나가 서둘러 와 주었다.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소매는 걷어붙인 채, 불길에 두 뺨이 발갱게 달아오른 건장한 여자가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뛰어든 것이다. 그녀는 무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휘두르는 동시에 호통을 쳐.. (p 15-16)

TT2-3)이렇게 한 것이 벌집을 온통 쑤셔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대여

섯 마리나 되는 네 발 뜯친 마귀들이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어린 놈 할 것 없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왔으니 말이다. 내 발꿈치와 코트 자락이 주로 들의 공격 대상인 모양이었다. 나는 쇠 부지깥이를 들고 솜씨껏 큰 놈들을 막아내면서 이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누구든 이 집 사람의 도움을 청하느라고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부엌일을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좀 더 빨리 와주었다. 옷자락을 걷어 올려 두 팔을 드러내고, 불에 두 불이 붉게 익은 역센 여자가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우리들 한가운데로 뛰어 들었다. 무기를 휘두르고 말로 꾸짖는... (p 14)

TT2-4) 이렇게 내가 취한 조치가 그만 벌집을 쑤셔놓고 말았다. 크기와 나이도 다양한 여섯 마리의 네 발 달린 악귀들이 숨어 있던 동굴에서 공동의 중앙 광장으로 달려 나왔다. 그들이 공격하는 특별 목표는 내 발꿈치와 옷자락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나는 부지깥이로 될 수 있는 한 효과적으로 큰 놈들을 격퇴시키면서 평화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소리를 질러 집안 사람 몇몇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부엌에 있던 누군가가 더 빨리 달려왔다. 기운차게 생긴 아주머니가 치맛자락을 추어올리고 팔을 걷어붙인 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양 불을 하고 우리 사이로 뛰어 들더니 프라이팬을 휘둘렀다. 그 무기와 자신의 혀를 적절히 사용하여... (p 15-16)

세 번째 예는 다음과 같이 원문이 일반적인 표현인 것을 관용구로 바꾸어 주는 경우로 TT3-1의 경우 ‘have no rest’를 ‘발 뺨고 자려면’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번역본은 원문의 ‘have no rest’와 유사하게 ‘편히 쉴 수 없어’, ‘편하질 않겠어’, ‘답답해 못 견디겠어’ 등 일반적인 표현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번역에 관용구나 은유를 추가하게 되면 원문이 주는 효과가 더 살아나게 된다. 이는 다른 부분에서 손실된 것을 보충해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문학적인 향취를 더 살려주기 위한 번역가의 전략일 수도 있다. TT3-1에서는 관용적 표현 이외에도 ‘some of you’를 ‘네놈 중에 몇 놈’이라고 번역하여 ‘너희들 중 누구라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를’, ‘너희들 중 하나를’이라고 표현한 다른 번역본 보다 구어체적 느낌이 훨씬 강하다. 첫 번째 예문의 경우와 같이 관용어구와 은유적 표현 사용이 다른 부분의 구어체적 표현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ST3) "... I want to kill some of you, I shall have no rest till I do!" (74)
 TT3-1) "...오늘 밤 발 뺀고 자려면 이제 네놈 중에 몇 놈 죽여야 쓰겠다."
 (119)
 TT3-2) "...난 너희들 중 누구라도 죽이고 싶어. 그러지 않고는 편히 쉴 수
없어." (117-118)
 TT3-3) "...난 너희들 가운데 하나를 죽이고 싶어. 그러자 않고는 편하질
않겠어!" (p 121-122)
 TT3-4) "...너희들 중 하나를 죽여야겠다. 그러지 않고는 답답해 못 견디
겠어!" (p. 114)

4.2. 비속어

김순미(2010)에 의하면 텍스트 장르상 예술적, 수사적 표현이 중요시 되며 감정 이입도가 높은 문학 작품의 번역을 할 때 번역가들은 ST의 효과를 유지해 주려 하지만 번역문의 속성상 자연스럽게 ‘명시화’, ‘표준화’를 하여 형식성(formality)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속어의 경우 ST보다 번역문에서 거칠거나 지속적인 표현의 사용이 강화되기 보다는 약화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다음은 워더링 하이츠의 집사 조셉(Joseph)이 히스클리프의 며느리인 캐시에게 훈계하는 장면으로 방언과 비속어가 뒤섞여 있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 경우 TT4-3과 TT4-4의 경우 방언이 드러나지 않는 표준어로 번역이 되었고 조셉의 억양과 성격에서 드러나는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도 각각 ‘지옥에나 가는거지’와 ‘악마한테나 가버려’ 등 정도였다. 이에 반해 TT4-1의 경우는 ‘밥버러지 같은 자숙’,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나’, ‘에미하고 같이 퍼뜩 뒤통지거라 고마’ 등 여러 군데서 원문의 강한 억양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TT4-2의 경우도 ‘쓰잘대기 없는 물건’, ‘제 버릇 개 주겠나’, ‘에미처럼 곧장 악마헌티로 내뺄겠지’ 등으로 방언과 비속어의 효과를 살려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TT4-3의 경우는 조셉이 캐시에게 ‘당신은’이라는 존칭을 사용함으로써 ‘너’라는 표현을 사용한 TT4-4의 경우보다도 더 조셉을 공손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으며 결국 규칙을 엄하게 적용하는 단호한 성격의 집사로 묘사되고 있다.

ST4) 'Aw woonder hagh yah can faishion tuh stand thear i'idleness un war, when all on 'em's goan aght! Bud yah're a nowt(nothing), and it's

noa use talking - yah'll niver mend uh yer ill ways; bud goa raight tuh ' divil, like yer mother afore ye!' (p. 15)

TT4-1) “어쩌자고 이리 게을러터진 건지. 모두 일한다고 나갔는디! 하기사 만고에 밥버리지 같은 자숙한테 이리 떠들어서 뭐할 건데. 내가 뭐라칸다 캐서 네가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기냥 에미하고 같이 퍼뜩 뉘지거 란 고마.” (27)

TT4-2) “다덜 한데서 일허는디 빈둥거리는 꼴이라니! 쓰잘데기 없는 물건 에게 말해 봤자 입만 아프지. 제 버릇 개 주겠다. 즈이 에미처럼 곧장 악 마헌티로 내빼겠다!” (27)

TT4-3) “다들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왜 할 일 없이 서 있나 몰라! 하지만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니 말해 봤자 소용없지. 그렇다고 버릇이 고쳐진 얌을 테니. 당신 에미처럼 바로 지옥에나 가는 거지!” (27)

TT4-4) “모두 바쁘게 일하러 나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다니, 넌 더 나빠! 말해봤자 소용없지. 그 버릇은 절대 고치지 못할거다. 너도 네 에미처럼 곧장 악마한테나 가버려!” (27)

위와 같이 번역문 마다 비속어를 통한 격식성의 차이는 매우 큰데 이에 대해 한미선은 “금기 비속어의 경우 인물의 특성이나 작가의 문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으며 해당 어휘 자체가 어휘에 담긴 감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번역의 적절성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목표문화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어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012: 299)고 밝힌다. 다시 말해, “소설의 경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사하는 담화문의 격식은 지극히 다채로울 수밖에”(2011: 300) 없고 이는 “인물들의 개성을 차별화하기 위해 원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문학적 장치”(300)이기 때문에 제대로 살려주어야 인물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4.3. 방언

다음은 워더링 하이츠의 집사인 조셉과 록우드씨의 대화로 조셉은 강한 요크셔 액센트로 말하고 있다. 이 강한 액센트는 그의 무지하고 광신자적 성격을 더 두드러지게 해주는 효과를 주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번역해 주는가에 따라 인물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 김순미(2011)에 따르면 방언의 번역을 보면 표준어로, TL의 방언으로, 번역가가 문법, 어휘, 음절 등의 변화를 주어 새로 창조한 언어로, 지역 방언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TL의 사회적 방언으로 번역을 해주는 방법 등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TL의 방언으로 번역하는 것과 창조한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은 효과가 큰 반면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반면 표준어로 번역하게 되면 ST의 효과가 전혀 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중간 단계로 사회적 방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효과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크게 벗어난 느낌을 주지 않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예문을 보면, TT5-1과 TT5-2는 각각 TL의 방언과 사회적 방언을 섞어가며 원문과 유사한 효과를 주려 한 반면 TT5-3과 TT5-4는 표준어로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T5-3의 경우는 “~하슈”하는 어투를 사용하여 빈정대는 느낌은 살리고 있으나 TT5-4의 경우 표준어에다 경어체까지 쓰고 있다. 각 방언의 효과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 있다. TT5-1과 TT5-2를 비교해보면 TT5-1은 “뭘꼬?”로 시작하여 경상도 사투리가 강하게 들어가 강하고 통명스런 느낌이 드러나는 반면 TT5-2는 그것 보다는 “~할 때꺼정”, “~할게여” 등 통명하고 거친 모습을 살리기 위해 번역가가 만들어낸 어투와 사회적 방언을 섞어서 조셉의 성격이 주는 효과를 전달하려 한 차이점이 있다. TL의 특정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이 주는 느낌과 원문의 인물이 주는 느낌이 섞여 의도하지 않았던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TT5-4의 경우 조셉을 각뚱하게 예의를 차리는 일반적인 집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ST5뒤의 ST5-1은 조셉의 강한 방언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미를 표준어로 살린 원문 해석이다.

ST5) "Whet are ye for?" he shouted. 'T' maister's dahn i' 'f'fowld. God rahnd by th' end ut' laith, if yah went tuh spake tull him.'

'Is there nobody inside to open the door?' I hallowed, responsively.

'They's nobbut t'missis; and shoo'll nut oppen't an ye mak yer flaysome' dims till neeght.'

'Why? cannot you tell her who I am, eh, Joseph?'

'Nor-ne me! Aw'll hae noa hend wi't,' muttered the head, vanishing. (p. 10)

ST5-1)"What do you want?" he shouted. "The master's down in the fold [sheep pen]. Go round the end of the barn if you want to speak to him."

"Is there nobody inside to open the door?" I hallooed, responsively.

"There's nobody but the mistress, and she'll not open it for you if you make your frightening din [noise] till night."

"Why? Cannot you tell her whom I am, eh, Joseph?'

"Not me. I'll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it," muttered the head, vanishing.

TT5-1)“뭘꼬?” 조지프가 고함을 질렀다. “주인은 축사에 있을 긴데. 할 말 있으면 헛간 저쪽으로 가보든가.”

“안에는 문 열어줄 사람 없나?”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마님 뿐일 긴데. 밤중까지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도 안 열어줄 기다.”

“왜? 내가 누구인지 마님한테 가서 전해주면 안 되겠나, 조지프?”

“어데!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조지프의 머리가 증얼거리리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p. 19)

TT5-2) “무슨 불일이라?” 하고 그는 소리쳤다. “천장은 양 우리 쪽에 있수, 그 양반에게 할 말이 있거들랑 헛간을 뺑 돌아가 보든가.”

“집 안에는 문 열어 줄 사람이 없는가?” 내가 불임성 있게 큰 소리로 물었다.

“천아씨밖에 없수. 껌껌해질 때거정 소란을 피워 봤자 문을 열어 주지는 않을 게여.”

“왜지?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말 좀 해주지 그러나, 조지프?”

“내가 왜! 내가 으쩌라 저쩌라 헛 일이 아니지.” 이렇게 증얼거리며 그는 사라져 버렸다. (pp. 19)

TT5-3) “뭘 땀에 그러슈?” 그는 소리쳤다. “주인은 양 우리에 가셨소. 그 양반에게 할 얘기가 있거든 헛간을 뺑 돌아가슈.”

“집 안에는 문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यो?” 나도 여봐란듯이 딱 딱 울러댔다.

“마님밖에 없소.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소란을 피워도 그분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요.”

“아니, 내가 누구라는 걸 그분에게 알려줄 순 없나, 조셉?”

“내가 알 게 뭐요! 난 그런 일엔 상관 없소이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내밀었던 머리를 도로 놓아버렸다. (pp. 18-19)

TT5-4) “왜 그러시오?” 그가 외쳤다. “주인님은 양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인님께 할 얘기가 있으면 창고 뒤로 돌아가보시오.”

“집 안에는 문 열어줄 사람도 없단 말인가?” 나는 응답 조로 외쳤다.

“아씨밖에 없어요. 아무리 문을 요란하게 흔들어도 밤이 되도록 아무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뭐야? 자네가 아씨한테 내가 누구라고 말해줄 수 없나, 조셉?”

“안 돼요! 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머리통은 중얼거리더니 창 안쪽으로 사라졌다.(pp. 19)

4.4. 대우법

문학에서 등장인물 간의 성격과 관계를 나타낼 때 중요한 것은 묘사, 방언, 비속어 사용과 함께 한국어에 독특한 대우법을 들 수 있다. 영어에는 한국어와 같이 복잡한 대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가는 명사, 대명사, 종결어미 등을 사용하여 인물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경, 사회상, 인물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된다. 다음 예문은 주인공인 캐서린과 에드거 린튼의 대화로 각 번역마다 다양한 경어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TT6-1과 TT6-2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반말을 하고 있다. 십대의 친구들이 서로 반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 번역가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명숙 번역가에 의하면 “성차별이라는 점에서도”(2000: 169) 여성만 경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캐서린과 에드거는 서로 반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다. 이와는 달리 TT7-3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더 공손한 경어체를 사용하는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여 캐서린만 경어를 사용하고 있다. TT7-4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경어를 사용하여 예의를 지키는 높은 사회 계급의 느낌을 살리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경어체의 사용은 보는 사람의 시대에 대한 관점, 인물들 간의 관계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언어구사에 대한 번역가의 태도는 번역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앞의 두 번역은 더 현대적인 문체를 그리고 있는 반면 뒤의 두 번역은 훨씬 고풍스런 느낌을 주고 있다.

TT7-1) “어디 가게?” 캐서린이 문 앞을 막으며 물었습니다.
 에드거는 피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지요.
“가지 마!” 캐서린이 힘주어 소리쳤습니다.
 “가야 해. 갈 거야!” 에드거가 나직하게 대꾸했습니다.
 “못 가.” 캐서린은 문고리를 잡고 막아섰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 에드거 린튼. 앉아. 그렇게 화내며 가버리면 안돼. 그럼 난 밤새 괴로워해야 해. 너 때문에 괴로워하기 싫어!” (115)

TT2: “어딜 가는 거야?” 캐서린이 문간으로 다가서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에드거 린튼은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고 했지요.
 “가면 안 돼!” 캐서린은 힘을 주어 소리쳤어요.
 “가야만 해. 갈 거야.” 에드거 린튼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안 돼!” 캐서린은 문의 손잡이를 잡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아직은 안 돼. 에드거 린튼. 앉아. 그런 기분으로 가게 하지는 않겠어. 그럼 밤새 괴로울 테고. 난 너 때문에 괴롭고 싶지는 않아.” (114)

TT3: “어딜 가는 거예요?” 캐서린 아가씨는 문간으로 다가서면서 다급히 물었어요.
 도련님은 옆으로 비켜 지나가려고 했어요.
 “가면 안 돼요!” 아가씨는 힘주어 소리쳤어요.
 “돌아가야겠어. 돌아가야겠다고!” 도련님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에드거 린튼. 앉아요. 그런 기분으로는 가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밤새도록 괴로울 테니까.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고 아가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119)

TT4: “어디를 가시려고요?” 캐서린이 문 쪽으로 다가서면서 묻더군요.
 에드거는 그녀를 제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캐시는 힘껏 외쳤습니다.

“가야겠습니다. 갈 겁니다!” 린튼은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캐시는 문의 손잡이를 잡고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

다.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에드거 린튼. 앉으세요. 그렇게 화난 채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밤새도록 비참할 거예요. 전 당신 때문에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111-112)

5. 번역가별 번역전략 정리

텍스트 유형에 따른 ‘기능’을 비평 기준을 바탕으로 『폭풍의 언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평을 해보았다. 이는 결국 번역문제에 대한 각 번역가들의 ‘번역 전략’에 대한 비평이었다. 분석 결과 각 번역가들은 문학적 형식의 전달 방법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번역가와 출판사가 제시한 역자후기나 출판후기 등 ‘결텍스트’(paratext)⁵⁾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번역가 별로 분석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T1의 김정아 번역가는 언어적 수준에서는 인물들 간 대화에 현대적인 한국어를 사용하였고 관용어와 은유뿐 아니라 방언과 비속어의 경우에도 원문 형식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사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려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원문보다 더 강한 비속어 사용, 한국 특정 지역의 방언 사용, 원문에 없는 부분에 관용어와 은유적 표현 삽입 등 다양한 시도도 눈에 띄었다. 또한 나이가 어리고 가까운 사이인 등장인물간 반말체의 사용을 통해 현대적인 어투를 부각시킨 점도 다른 번역본들과 다른 점이었다. 이로 인해 4종의 비교 번역본 중 가장 도착어권의 독자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번역을 만들었다. 심한 비속어 사용과 현대적인 배경의 인물 설정, 한국의 특정 지역 방언 사용 등은 자칫 원문과 거리감이 있는 어색한 텍스트를 만들 수 있

5) “문학작품이라는 대상은 작품의 순수한 텍스트와 더불어 그 가장자리에 걸다리로 붙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저자명, 책제목, 서문, 삽화, 표지에 쓰인 글, 띠지에 쓰인 글 등)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텍스트를 둘러싸고 그것을 연장하면서 텍스트를 소개하고 그것이 책의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것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지영래, 박선희 2010: 247).

는 요소이나 인물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 있는 현대적 문학작품을 만들 수 있는 번역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책 안에는 번역가의 전략을 보여주는 결텍스트가 제시되고 있었다. 우선, 김정아본 뒷면에는 ‘현대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불멸의 사랑(밀줄은 필자의 것) 라는 번역의 언어적 선택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선전문구가 있다. 또한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발간에 부처’ 라는 권말 해설에도 출판사의 번역 방향을 보여주는 문구가 있었다. “21세기 한국에 새로운 세계문학전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문학을 다시 구상할 때가 되었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고전에 대한 상식을 존중하면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해외 주요 언어권에서 창작과 연구의 진전에 따라 일어난 정전의 변동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밀줄은 필자의 것) 라는 편집 의도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 밀줄 친 부분을 볼 때 출판사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집 발간이라는 편집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김정아 번역은 이런 배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간결한 현대식 어투와 인물관계로 고전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어필하리라 생각된다.

TT2 유명숙 번역은 영미연 연구에서 추천본으로 선정되었던 작품이다. 역자 후기에서 “1998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워더링 하이츠를 냈지만, 사투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 등등 아쉬움이 남아 전면 개고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568)고 밝힌 점이나 ‘워더링 하이츠’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을 정도로 번역에 대한 세심함이 돋보이며 번역의 기본이 된 판본을 소개한 점도 다른 번역본과는 다른 점이다. 번역 후에 ‘고전 번역의 실제 - Wuthering Heights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번역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번역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힌 것도 번역가의 입장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영미연의 번역 평가에서 논의 되었던 점이 개정판 번역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학자들의 평가 노력이 긍정적인 결실을 맺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형식면에서는 김정아 번역가와 마찬가지로 유명숙 번역가 역시 원문의 비유적 표현, 방언, 비속어 등을 TL의 유사한 형식으로 번역하여 같은 효과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번역 전략은 김정아 번역가처럼 원문보다 더 강한 비속어나 추가적인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원문에 대

응되는 장소에만 유사한 문학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물 간의 관계에서는 캐서린과 에드거 린튼,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의 캐서린과 히스클리프 등 나이가 비슷한 젊은 남녀간 서로 반말을 쓴다던지 머느리와 시아버지의 대화에서도 반말체가 들어가는 등 좀 더 현대식 구어체를 반영하려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명숙 번역가는 “제가 이 소설을 번역하면서 제일 고민한 문제는 성인으로 다시 만난 이들의 대화를 경어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반말로 처리할 것인가의 여부였습니다. 기간 번역본은 대체로 히스클리프는 반말, 캐서린은 경어를 쓰는 것으로 처리를 했더군요. 성차별이라는 점에서도 걸리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대역섯 살부터 한 침상을 쓰면서 남매처럼 자란 터인데 3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경어를 쓰는 것은 (그것도 캐서린만 경어를 쓰는 것은) 이상하지요”(2000: 169) 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고심을 한 결과 문학적 생동감이나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고 현대적인 문체 등이 잘 드러났으며 이는 소논문을 통해 밝힌 번역가의 번역 전략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TT3의 김종길본도 영미연 번역 평가에서 추천본으로 이름이 올라간 경우이다. 모든 번역본 중 가장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역자 후기를 통해 “폭풍의 언덕은 주로 시에만 손을 댄 역자가 번역한 단 한 편의 소설이다. 시와 마찬가지로 소설에 있어서도 문체는 매우 중요하다는 요량으로 원문의 문체에 충실하려고 애쓴 점을 특히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에 민음사 세계문학집으로 간행하면서 당초의 번역 문체에 상당한 손질이 가해졌다”(569)고 밝혔다. 영미연 평가나 이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가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려고 했으리라 여겨지는데 본고의 지금까지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작가의 충실성은 원문의 문학적 형식보다는 의미적, 언어적 충실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관용어, 은유, 방언, 그리고 인물간 대화의 격식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문학적 효과보다 표준화된 언어 사용에 주력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문에서 방언을 사용하여 인물 특징을 드러낸 부분이 번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인물들의 성격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대화, 예를 들어 젊은 남녀간 대화에서 남성은 반말, 여성은 존댓말을 사용하는 고어체적인 대화 형식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김종길

의 번역은 우리식, 현대식 배경을 입히지 않고 고전적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원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을 선호하는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TT4의 이덕형 번역가는 앞의 김종길 번역가와 유사하게 원문과 언어적 수준에서 가장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한 반면 방언이나 인물간의 언어 사용역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이 주는 효과는 감소된 번역을 하였다. 단지는유적 표현의 경우나 비속어의 경우 김종길 번역가보다는 좀 더 강하게 효과를 전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덕형 번역가의 경우 역자후기나 다른 결텍스트를 통해 번역 전략에 관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밝히는 전략을 알 수는 없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라이스의 텍스트 유형에 근거해 문학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미적 요소를 문학번역비평의 기준으로 정한 뒤 그에 의거해 각 텍스트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기술하였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비평이나 그렇지지만 문학번역 비평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로 인해 영미연의 충실성과 가독성 중심의 비평과 문학의 미적 효과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영미연 평가의 충실성 면에서 최고의 추천을 받은 김종길 번역은 본 연구의 기준인 문학적 효과 전달 면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형식보다는 의미 번역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의 기준인 은유나 비속어, 방언, 대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학의 형식을 잘 살리고 인물들의 개성이 살아 있는 번역을 한 김정아본은 곳곳에 의역이 있어 언어적, 의미적으로 충실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⁶⁾. 두 번역비평 방법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

6) 다음 ST의 ‘not accustomed to be spoiled’는 김종길 번역과 같이 ‘귀염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의미로 그러니 건드리면 물릴 수 있다는 의미이지 김정아 본과 같이 ‘버릇없이 굴면 맞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는 점은 각 방법마다 의미와 그 기여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독성과 언어적 충실성을 기준으로 하는 번역비평은 오역과 중역이 판치는 함량미달 번역 풍토를 개선하고 유려한 한국어 사용을 권장한다는 의미가 크고 문학적 효과 전달을 기준으로 하는 번역비평은 작가의 문체 이해와 전달에 대해 분석하고 알리는 의미가 있다.

둘째, 문학의 미적 요소를 기준으로 번역분석을 해보니 텍스트마다 다른 번역 전략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출판사의 편집 성향도 달랐다. 이 때문에 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들은 일관되게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번역평가는 결국 기본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번역 비평가는 먼저 자신의 기준을 밝히는 동시에 번역가의 번역 전략을 찾아 이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상원의 의견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셋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드러난 번역 전략은 번역가나 출판사가 결텍스트에서 밝히는 의견과 일치했다. 이는 번역평가에서는 결텍스트를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번역비평은 작품을

ST: 'You'd better let the dog alone,' growled Mr. Heathcliff, in unison, checking fiercer demonstrations with a punch of his foot. 'She's not accustomed to be spoiled-not kept for a pet.' (6)

김종길 역) “그 개는 내버려 두는 게 좋을거요.” 히스클리프씨는 개가 더 사납게 덤비지 못하게 발길로 툭 차면서 개와 함께 으르렁대듯 말했다. “그놈은 귀염을 받아본 일이 없거든, 애완용으로 기른 게 아니니까.”(p13)

김정아 역) “개 건드리지 마시오.” 히스클리프 씨가 이미 개와 비슷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더 사납게 굴지 못하도록 개를 걷어찼다. “버릇없이 굴면 얻어맞아야지. 애완용이 아니니까.” (14)

*다음 ST의 ‘undeserved’는 김종길 번역과 같이 사람들이 자신을 냉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미이지 김정아 본과 같이 ‘과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ST: By this curious turn of disposition I have gained the reputation of deliberate heartlessness, how undeserved, I alone can appreciate. (p6)

김종길 역) 이런 별난 성격 때문에 나는 일부러 매정스럽게 군다는 소문이 나고 말았는데, 이 소문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p12)

김정아 역) 나는 이런 묘한 성향으로 인해 무정한 남자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얼마나 과분한 평판인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p14)

비평하면서도 정작 번역가의 번역관과 작품 해설, 번역방법 등을 엿볼 수 있는 결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었다. 어찌 보면 변호를 듣지 않는 심판과도 같은 비평이 이루어 졌다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번역 비평에서 비평가들은 결텍스트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번역가들과 출판사 또한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권말 해설, 책 표지, 책소개, 인터넷 서점 리뷰, 출판사 홈페이지, 작가 블로그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번역 전략을 알려야 할 것이다.

넷째, “다름’의 미학에 바탕을 둔 서로 다른 문학텍스트”(이형진 2008: 90)에 대한 번역 비평은 결국 어떤 것을 다른 것 위에, 혹은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텍스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고전작품의 경우, 현재까지도 작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번역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 또한 시대와 분석 관점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평가가 등장할 수 있을 것”(김순영 이경희 2012: 53) 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각 번역의 문학적 효과를 기술하는 평가의 장점은 어떤 번역물이 어떤 독자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말투, 목표어권의 문화와 언어, 생동감을 살린 번역은 이와 같은 문체를 좋아 하는 독자들에게 어필할 것이고, 고전적이고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번역은 이를 좋아 하는 독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다. 이를 볼 때 향후 다른 번역본과 차별화 되는 번역가의 번역전략과 출판사의 목적과 의도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한다면 독자들은 각각 선호하는 문체의 번역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상원의 번역비평의 특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번역비평은 텍스트 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미적 형식을 드러내는 부분들은 텍스트 전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분석 예시문은 전체 작품 중 특정 부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번역가 작품의 여러 미적 요소 간에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가 권말에 밝힌 번역가나 출판사의 번역 전략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번역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본 논문에서 분석한 문학적 도구는 은유, 비속어, 방언, 대우법 등에 국한되었으나 이는 자체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연구라기보다는 향후 미적 형식 측면에서 번역비평을 하기 위한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순미 (2002) 「영한번역에서의 은유법 연구」, 『번역학연구』 3(2): 81-112.
- _____ (2003) 『영한번역에서의 ‘은유’에 관한 연구 -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_____ (2010) 「문학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159.
- _____ (2011) 「문학작품 속의 방언 번역」, 『통번역학연구』 15: 189-219.
- _____ (2012)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 비평」, 『번역학연구』 13(2): 7-40.
- 김순영, 이경희 (2012) 「『대성당』 번역본의 문체적 특성 고찰」, 『번역학연구』 13(1): 33-58.
- 김영희 (2008) 「문학번역 평가의 의미와 한계 영미고전문학 번역평가사업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24: 33-62.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1』, 서울: 창비.
- 유명숙 (2000) 「고전 번역의 실제 - Wuthering Heights를 중심으로」, 『국어문 화학교』 Vol 3: 158-174.
- 이상원 (2006)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 규범 연구』,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_____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 연구』 9(2): 149-166.
- 이형진 (2008) 「문학번역 평가의 딜레마와 번역비평의 방향」, 『영미문학연구 안과밖』 24: 86-112.
- 전현주 (2008) 「번역 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 연구』 9(1): 215-257.
- 정혜용 (2012) 『번역 논쟁』, 경기도 파주: 열린책들.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겹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1(3): 247-276.
- 한미선 (2011) 「비속어의 영한번역 사례연구: 격식성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3): 281-303.
- _____ (2012) 「격식변화 측면에서의 금기 비속어 번역의 특징 연구: 영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3(5): 277-306.

- Boase-Beier, Jean and Michael Holman (1998) 'Writing, Rewriting and Translation: Through Constraint to Creativity', in Jean Boase-Beier and Michael Holman(eds) *The Practices of Literary Translation: Constraints and Creativit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17.
- _____ (2006)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Gibbs, Raymond (1994) *The Poetic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ders, Clifford (2001)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Clevedon: The Multilingual Matters.
- Lefevere, Andre (1992) *Translating Literature: Practice and Theory in a Comparative literature Context*, New York: MLA.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The Potentials &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분석대상 텍스트

- 김경아 (2011) 『폭풍의 언덕』, 경기도 파주: 문학동네.
- 김종길 (2005) 『폭풍의 언덕』, 서울: 민음사.
- 유명숙 (2010) 『위더링 하이츠』, 서울: 을유문화사.
- 이덕형 (2012) 『폭풍의 언덕』, 서울: 문예출판사.
- Bronte, Emily (1995) *Wuthering Heights*, London: Penguin Books.

[Abstract]

**Translation Criticism based on the Aesthetic Effects of a Literary Translation:
Focusing on *Wuthering Heights***

Kim, Soon M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tting criteria for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has been considered far more difficult than that for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non-literary translation. The most frequently used criteria have been 'faithfulness' to the source text and 'readability' or 'naturalness' of the target text.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literary translations of English classical works conducted by Scholars for English Studies in Korea(SESUK) is one of the attempts to criticize translations in terms of these two criteria. Despite its accomplishments in screening sub-par translations characterized by bad translation, mistranslation, and translationese, the undertaking has shown its limitations in criticising literary translation by focusing on error analysis and giving translations a subordinate position to the original.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scope of criticism beyond the realm of error analysis by setting criteria of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based on the framework proposed by Reiss. The functionalist argu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literary translation and its criticism is rendering the aesthetic effects in the source text so that the response of the target readers would be the same as that of the source text readers. According to Lefevere, a prominent literary translation scholar, important translation issues in the literary translation process on the level of illocutionary language use are metaphor, allusion, foreign words, names, register, pun, parody etc.

Setting these factors as important criteria in criticising literary translation,

this paper analyzes *Wuthering Heights* by Emily Bronte, which was one of the translations evaluated by the SESK. Through the analysis of four translations (two by translators highly evaluated by the SESK and two recent translations), this research finds that translating strategies regarding slangs, metaphors, dialect, and relations between characters in literature differ significantly among translators. By describing rather than rating or evaluating different strategies and perspectives of each transl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each translation function differently, thereby serving to satisfy different group of readers.

▶ Key Words: criticism, literary translation, functionalist, aesthetic effects,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김순미

숙명여대 영문과 조교수

smikim@sookmyung.ac.kr

관심분야: 번역비평, 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과 사회학, 문학번역, 의료통역

논문투고일: 2014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